

북한

2003. 6

홍익표

(iphong@kiep.go.kr)

I .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122,762 km²
- 인 구: 2,217.5만명(2000년 현재)
- 기 후: 계절풍 온대성 기후
- 시 간 대: 한국과 동일

□ 행 정

- 공식국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수 도: 평양(平壤)
- 행정조직: 1특별시(평양), 2직할시(개성·남포), 9도

□ 정 치

- 정부형태: 내각제
- 국가원수: 형식상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 의회형태: 단원제(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대의원 687명)
- 총 리: 홍성남(1998년 9월 취임)
- 주요정당: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

□ 사회·문화

- 민 족: 한민족
- 언 어: 조선어(표준어: 보통어)
- 종 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불교 등이 형식상 존재
- 공 휴 일: 김정일생일(2. 16) 태양절(4. 15), 당 창건일(10. 10)
- 도 량 형: 미터법

□ 한국과의 관계

- 주요 합의문: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6·15 공동 선언(2000년)
- 주요교류: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적십자회담 등

II.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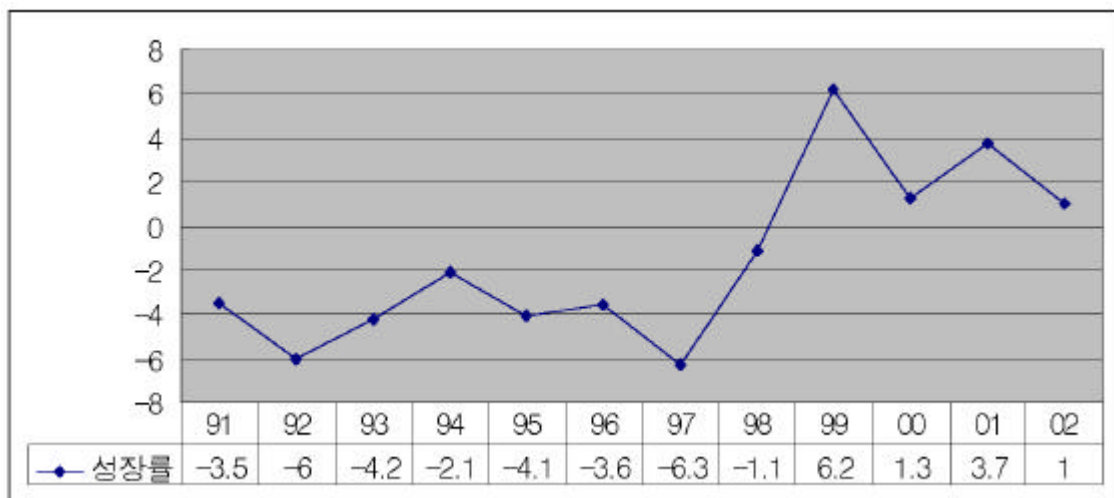
1. 최근 경제동향

항 목	단 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 구	천 명	23,855	21,942	22,082	22,175	22,253	22,369
명목 GNI	10억 원	16,814	17,597	18,741	18,978	20,287	21,331
1인당 GNI	만 원	77.1	80.2	84.9	85.6	91.2	95.4
GDP 성장률	%	-6.8	-1.1	6.2	1.1	3.7	1.2
농림어업성장률	%	-3.9	4.2	9.2	-1.9	6.8	4.2
광공업성장률	%	-15.6	-4.1	9.9	2.2	3.9	-2.5
수 출	억 달러	9.1	5.6	5.2	5.6	6.5	7.3
수 입	억 달러	12.7	8.8	9.6	14.1	16.2	15.3
남북교역	억 달러	3.1	2.2	3.3	4.3	4.0	6.4
총 외 채	억 달러	119.0	121.0	123.0	124.6	n.a.	n.a.
환 율	원/달러	2.16	2.20	2.17	2.19	2.21	153 ¹⁾
예산규모	억 달러	n.a.	91.0	92.2	95.7	98.1	n.a.

주: 1)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발표 이후 조정된 환율이며, 2002년 6월까지는 1달러당 2.21원이었음.

자료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결과』, 각년호.

□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2001년)

□ 수출(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0		2001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동물제품	97,900	17.3	158,359	24.3	38.2
식물제품	30,331	5.4	42,029	6.5	27.8
광물성생산물	43,158	7.6	50,464	7.8	14.5
화학, 플라스틱	44,929	7.9	44,600	6.9	- 0.7
목제품	10,941	1.9	5,596	0.9	- 95.5
섬유제품	140,044	24.8	140,530	21.6	0.3
귀금속류	9,814	1.7	14,077	2.2	30.3
비(卑)금속류	43,869	7.8	60,245	9.3	27.2
기계, 전기전자	105,247	18.6	97,914	15.1	- 7.5
기 타	39,572	7.0	36,394	5.6	- 8.7
합 계	565,805	100.0	650,208	100.0	13.0

자료: KOTRA

□ 수입(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0		2001		증감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동물제품	20,333	1.4	73,904	4.6	263.5
식물제품	159,008	11.3	221,024	13.6	39.0
유지,조제식료품	89,073	6.3	89,868	5.5	0.9
광물성생산물	171,202	12.2	231,100	14.3	35.0
화학공업제품	108,436	7.7	123,403	7.6	13.8
플라스틱제품	67,540	4.8	65,980	4.1	- 2.3
섬유제품	171,897	12.2	203,901	12.6	18.6
비(卑)금속류	85,188	6.1	100,355	6.2	17.8
기계류	205,051	14.6	243,826	15.0	18.9
차 량	146,185	10.4	88,427	5.5	- 39.5
기 타	182,617	13.0	178,503	11.0	- 2.3
합 계	1,406,530	100.0	1,620,291	100.0	15.2

자료: KOTRA

나. 국별 수출입

□ 북한의 10대 교역 대상국(단위: 천 달러, %)

순위	국 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총교역		점유율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1	중 국	37,214	166,727	450,824	573,131	488,038	739,858	24.7	32.6
2	일 본	256,891	225,618	206,760	249,077	463,651	474,695	23.5	20.9
3	인 도	25,542	3,060	142,881	154,793	168,423	157,853	8.5	7.0
4	태 국	19,522	24,922	188,301	109,586	207,823	134,508	10.5	5.9
5	싱가포르	2,875	3,050	46,245	112,298	49,120	115,348	2.5	5.1
6	독 일	25,574	22,756	53,575	82,077	79,150	104,834	4.0	4.6
7	홍 콩	46,384	37,974	68,451	42,555	114,835	80,529	5.8	3.5
8	러시아	3,404	4,541	42,881	63,794	46,285	68,335	2.3	3.0
9	스페인	12,693	12,637	15,312	31,626	28,005	44,236	1.4	1.9
10	영 국	1,305	2,034	25,338	40,713	26,643	42,747	1.4	1.9
10대 교역국 합계		431,405	503,319	1,240,568	1,459,650	1,671,973	1,962,970	84.8	86.5
전체 교역규모		565,805	650,208	1,406,530	1,620,291	1,972,335	2,270,499	100.0	100.0

주: 10대 무역상대국은 2001년도 기준으로 작성

자료: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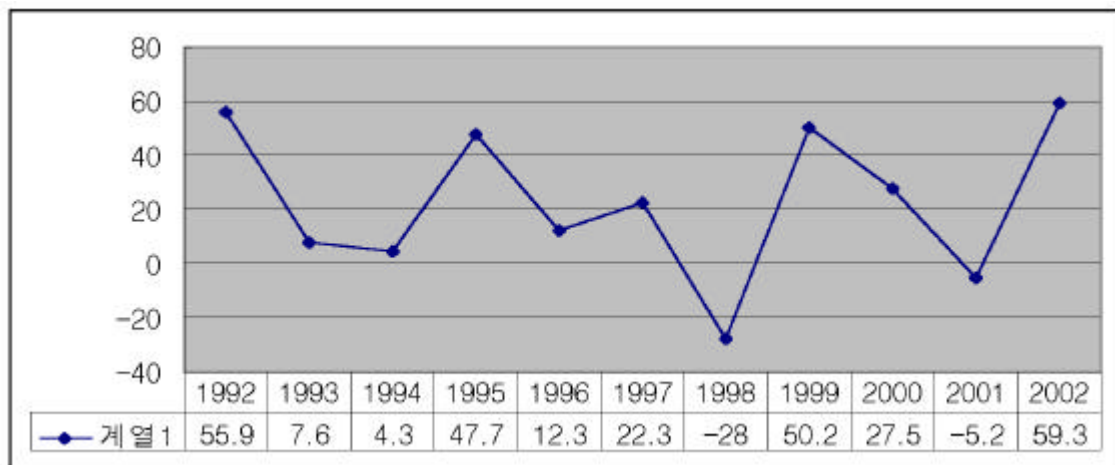
3. 남북한 경제관계

가. 교역(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1989	18,655	0	69	0	18,724	0
1990	12,278	0	1,188	0	13,466	0
1991	105,719	0	5,547	0	111,266	0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24,924
2002	271,575	102,789	370,155	68,388	641,730	171,782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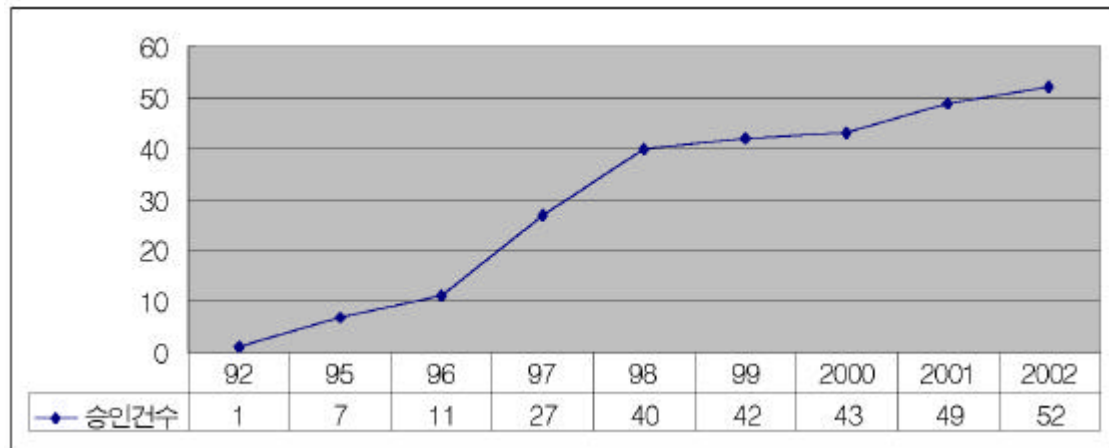
□ 남북교역의 증가추이(단위: %)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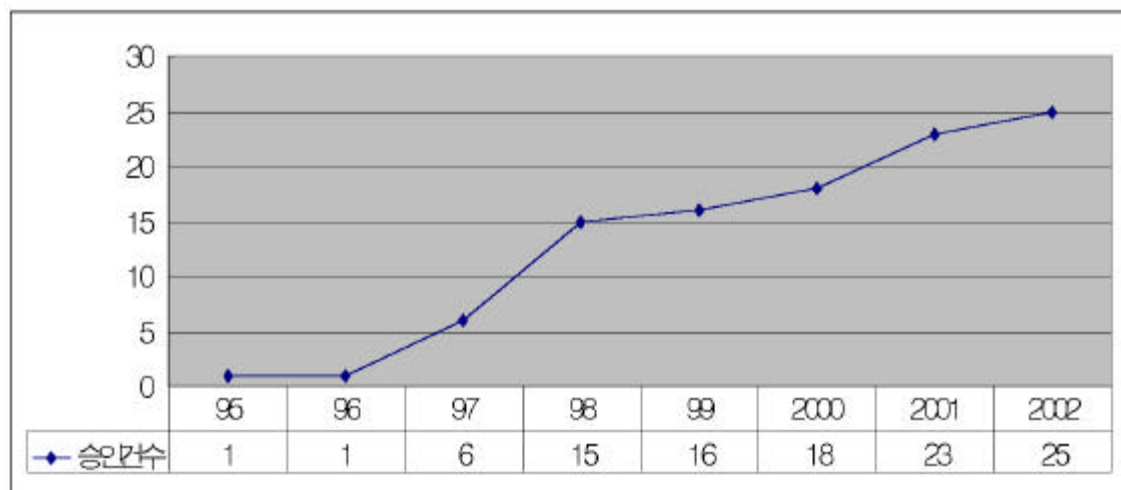
나. 경제협력사업자 현황

□ 연도별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누계)



자료: 통일부

□ 연도별 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누계)



자료: 통일부

III. 경제현안

1. 북한의 경제현안

가. 최근 경제현황

□ 1999년을 기점으로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경제는 2002년에도 외부지원, 실리중시의 경제운용과 경제관리 개선조치 및 양호한 기후조건 등에 힘입어 1.2% 성장하였으나, 전년(3.7%)에 비해 성장률은 낮아졌음.

- 한편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핵문제이후의 대외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산업전반의 생산증대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나, 주민들의 노동의욕 제고를 통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상업유통부문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02년도 북한의 산업별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 비중이 큰 농림어업이 양호한 기상여건과 수매가 인상 등에 힘입어 4.2% 성장하였으며, 건설업도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10.4%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음.

- 농림어업은 기상여건의 호조와 한국의 비료지원(30만 톤), 수매가 인상(쌀 Kg 당 82전→40원)에 의한 농민들의 생산의욕 증대 등으로 곡물수확량이 늘어났으며, 어업도 내수면 양식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2% 성장(2001년 6.8%)하였음.
- 곡물수확량(정곡기준)은 미곡이 173만 톤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고, 맥류를 비롯하여 옥수수 및 서류도 늘어남에 따라 전년(395만톤)보다 4.6% 증가한 413만 톤을 기록하였음.
- 건설업도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이 줄어든 반면 북한 전지역에 걸쳐 주거용 건물건설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0.4% 성장하였음.

□ 그러나 에너지·원자재 등의 부족현상이 계속됨으로써 산업비중이 큰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과 서비스 부문 등이 위축됨으로써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음.

- 우선 광업의 경우 전력부족과 설비노후 등으로 석회석 등 건설자재를 제외한 비금속광물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석탄생산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3.8% 감소하였음.
- 제조업부문은 경공업 생산이 늘어난 반면 중화학공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전년대비 2.0% 감소하였는데, 특히 경공업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필품 증산노력에 힘입어 식료품·의류·제재 및 목제품 등을 중심으로 2.7% 생산증가가 이루어졌음.
- 반면, 중화학공업 생산은 에너지난과 원자재 부족 등으로 강재 및 공작기계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전년대비 -4.2%를 기록하였음.
- 전기가스수도업은 수력발전의 경우는 전년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화력발전은 석탄생산 감소와 발전설비 노후 등으로 전기업이 -4.3%를 기록하였고, 수도업도 0.5%의 소폭증가에 그침으로써, 전체적으로 3.8% 감소하였음.
- 한편, 서비스업은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상업유통 활성화로 도소매업(6.5%), 운수업(3.8%), 음식숙박업(8.9%)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비중이 큰 정부서비스업(-1.5%)이 전년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음.

<표 1> 산업별 성장률 및 산업구조 현황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나. 2002년도 국가예산 집행 및 2003년도 국가예산안

-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에서 문일봉 재정상의 보고를 통해 2002년 국가예산 집행 및 2003년 국가예산안을 발표하

	산업별 성장률			산업구조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농 립 어 업	- 1.9	6.8	4.2	30.4	30.4	30.2
광 공 업	2.2	3.9	- 2.5	25.4	26.0	25.8
광 업	5.8	4.8	- 3.8	7.7	8.0	7.8
제 조 업	0.9	3.5	- 2.0	17.7	18.1	18.0
경공업	6.2	2.3	2.7	6.5	6.7	7.0
중화학공업	- 1.5	4.1	- 4.2	11.2	11.4	11.0
전기가스수도업	3.0	3.6	- 3.8	4.8	4.8	4.4
건 설 업	13.6	7.0	10.4	6.9	7.0	8.0
서 비 스 업	1.2	- 0.3	- 0.2	32.5	31.8	31.6
정 부	0.5	- 0.4	- 1.5	22.6	22.2	22.0
기 타	2.5	- 0.1	2.4	9.8	9.7	9.6
국내총생산(GDP)	1.3	3.7	1.2	100.0	100.0	100.0

였음.

- 이 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0.5%가 수행되었고, 국가예산지출계획은 99.8%가 집행되었음.

- 재정상의 보고에 의하면 전자공업성, 체신성, 육해운성, 비단공업관리국, 라남 탄광기계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중앙기관과 연합기업소들이 중앙예산수입계획을 계획대로 수행하였으며, 함경북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군들에서도 지방예산수입을 당초계획 이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지난해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생산정상화 및 경제관리개선에 주력한 결과 국가예산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한편, 국가예산지출에 있어서는 핵문제로 인한 국내외적 위기감으로 인해 총예산지출의 14.9%를 국방비로 사용하였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해 예산지출총액의 22.7%를 인민경제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드

러났음.

- 특히 경제건설의 최우선과제인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 등과 같은 선행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전력과 석탄 생산이 크게 늘어나고 철도의 기술장비수준이 제고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 2002년에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도 주력하였는데, 우선 농업생산 확대를 위해 토지정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가금업과 양어사업 등도 확대하였음.
 - 경공업부문의 기술개선 및 현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인민소비품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음.
 - 또한 지난해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부문에 많은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중심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정보과학기술·생물공학·신재료기술 등에서 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인민경제의 기술개선·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문 재정상은 예년과 달리 2003년도 국가예산의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고 전년대비 증가율만을 언급하였는데, 북한은 매년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예산의 규모와 부문별 지출비중을 제시해 왔음.
- 북한이 이번에 전체 예산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2002년 10월부터 본격 제기된 핵문제로 인한 북미관계의 악화와 군사적 위기감의 고조되면서 군사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보차원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국가예산을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인해 북한의 임금 및 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됨으로써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부문별 배정비율을 정확히 발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예산규모를 공개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임.
- 한편, 문일봉 재정상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2003년도에 수입이 전년대비 13.6%, 지출이 14.4% 각각 증가한 국가예산안을 확정하였는데, 2000~2002년까지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3~5%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03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음(<표 2> 참조).

<표 2> 최근 북한의 국가예산 추이

(단위: 억 북한원, %)

주: 1) 2003년도 국가예산은 2000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증가율은 전년대비임.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발표자료 참조.

- 국가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전체 예산에서 15.4%를 국방비로 배정한 점이 주목되는데, 문일봉 재정상은 이번 보고에서 “전승 50돌을 맞는 올해에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와 나라의 국방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최우선, 질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당의

연도	2000		2001		2002		200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	209.0	5.6	216.4	3.4	222.8	3.0	253.1	13.6
지출	209.6	4.7	216.8	3.5	221.3	2.1	253.1	14.4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북한은 지난 1999년 이후 해마다 국가 예산의 14.5% 안팎을 군사비에 배정해 왔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에도 14.4%로 지출을 계획했으나 결산

결과 0.5% 포인트 증가한 14.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금년도 군사비 점유율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며, 이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 경제부문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전력공업부문에 12.8%, 농업부문에 21.4%, 경공업부문에 12.4%, 과학기술사업발전에 15.7%, 교육부문에 15.3% 각각 지출을 확대하였음.
- 예산지출에 있어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부문이 현재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전력부문은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 이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업부문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21.4%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여전히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한편, 북한은 과학기술부문에 예산액을 상당히 늘렸는데, 이는 정보통신산업이나 생명과학 같은 일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경제부문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은 7.1경제관리개선 조치로 배급과 무상공급 물품 등이 감소하면서 인민적 시책비의 일부를 인민경제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문 재정상이 예산보고에서 사회문화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공업총생산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38%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음.

<표 3> 2003년도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회의 발표 자료.

다. 인민공채 발행

□ 금년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문일봉 재정상이 국가예산보고 중에 예산수입과 관련하여 공채발행계획을 언급한 점이 주목됨.

- 문 재정상은 “여유화폐자금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분	항 목	전년대비 증가율(%)
수 입	총예산수입	13.6
	국가기업이득금 수익	5.0
	협동단체 이득금	3.3
	사회보험료 수입	6.7
	토지사용료 수입	3.7
지 출	총예산지출	14.4
	전력공업부문	12.8
	석탄공업부문	30
	농업부문	21.3
	경공업부문	12.4
	과학기술발전사업비	15.7
	국토건설 및 도시경영부문	18.6
	교육부문	15.3
	문화예술부문	14.4
	보건부문	13.1
	체육부문	6.6

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북한 당국은 3월 27일자 내각공보를 통해 인민생활공채의 발행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이 내각공보에 의하면 인민생활공채는 2003년 5월 1일부터 발행할 예정이며, 발행될 공채는 10년 만기로 2013년 4월말이 채권소멸시기이고 500원, 1,000

원, 5,000원의 세 가지 액면가로 발행될 예정임.

- 또한 인민생활공채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상황을 담보하는 국가신용의 한 형태’라고 언급함으로써 중앙정부가 발행 및 상황을 책임지는 국채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공채발행은 해방직후와 한국전쟁 이후 발행한 것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 공채발행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선,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가재정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 재정상이 국가예산보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단위에서 수입원천을 최대한 동원하기 투쟁과 함께.....애국심과 공민적 자각에 의거하여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내부적 동원과 공채발행을 고려할 만큼 현재 북한 당국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 재정수입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기업 이득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¹⁾
 -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누적과 금강산 관광객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 등도 재정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공채발행의 또 다른 목적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변화된 환경하에서 통화량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다소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급여 및 상여금 인상에 따른 화폐공급이 확대되었으나, 생산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되고 있음.

1) 문일봉 재정상은 2002년 예산보고에서 2002년도 국가예산 수입금 중에서 국가기업이득금이 77.6%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지난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인센티브제의 확대, 원자재 비용의 지출 등과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출항목들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화폐가 농민시장으로 계속 유출되면서 공식부문에서는 화폐부족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3월 30일 『로동신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게 되는 공채의 인민적 성격은 나라의 화폐유통량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골고루 살아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데서도 표현된다”고 지적한 것에서도 화폐가치의 안정 및 인플레이 완화가 이번 공채발행의 주목적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농민시장으로 유출된 화폐를 공채판매를 통해 공식부문으로 다시 끌어들이므로써 화폐가치 및 통화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인플레이 현상도 다소 완화시키려는 조치로 분석됨.

□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은 공채발행을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통화량 조절을 통해 화폐가치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지만, 북한 당국이 발행할 공채가 이윤성·안정성·환금성 등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에게 강제 매각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일반 주민들의 후생감소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 대외경제 현황

□ 1990년대초 동구권의 붕괴, 중국의 시장경제적 사회주의 노선 채택 등으로 인해 1990년 41억 7천만 달러에 달했던 무역액이 최근에는 2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0.4% 감소한 22.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중 수출은 7.3억 달러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5.9% 감소한

15.3억 달러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무역적자 규모는 2002년도의 9.7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8억 달러로 줄어들었음.

- 수출은 수산물·섬유류 등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곡물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입이 다소 줄어들었음.
- 또한 2002년도 상반기 중에는 대외무역이 부진하였으나 7월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부터 대외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북한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주요 국별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대중국 교역은 수입이 62.4% 증가하고 수입은 18.1% 감소하면서 전체 교역액이 7.3억 달러로 전년대비 0.1%의 소폭 증가에 머물렀으며, 대일교역은 수출이 2.0% 증가한 반면 수입이 46.7%나 급감하면서 총교역액도 3.6억 달러로 전년대비 23.6%나 감소하였음.
-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철강·의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연료·곡물·비료 등임.
-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어패류·의류·전자전기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모제품·기계류 등임.

□ 2002년도 북한의 대외경제환경은 북미관계의 악화와 핵문제의 돌출 등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2년 1월말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계속 악화되던 북미관계는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 기간중 북핵문제가 제기되면서 11월에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 12월에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 및 제네바 합의 사문화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양국관계도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고 있음.

- 일본과는 2002년 9월에 최초로 양국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경제협력 실시를 비롯한 4개항의 북일 평양선언에 합의하여 양자관계의 개선이 예상되었으나,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내 여론악화와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다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고 정상회담 이후 수교회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중국과는 무역확대, 경제지원 획득 및 기업간 합영사업 추진에 주력하였는데, 특히 2002년 4월의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을 맞이하여 중국으로부터 5,000만 원(약 6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받았음.
- 반면, 2002년에 북러관계는 가장 진전된 모습을 보였는데,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을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이외에도 북한 경제대표단의 러시아 극동 방문(4월),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폴리코프스키의 방북(2월, 4월) 외무장관 회담(5월), 러시아 철도장관 방북(10월) 등을 통해 한반도 철도(TKR)와 시베리아철도(TSR) 연결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음.

□ 2002년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경제특구로 상징되는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들 수 있음. 북한은 지난해에 신의주 특별행정구(9월)에 이어 금강산관광특구(10월), 개성공업지구(11월) 등을 잇따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음.
- 둘째, 2001년에 이어 경제사절단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경제외교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 EU 국가와의 경제사절단 교류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러시아와는 경제사절단은 물론 정부 요인의 상호 방문이 두드러졌고 동남아국가들과의 경제교류도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였음.
- 셋째, 북한과 러시아의 경협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양국

간 주요 경제협력 이슈는 TSR-TKR 연결 프로젝트, 북한광물의 공동개발사업, 북한내 러시아산 원유가공사업, 극동지역 생산전력의 대북 지원 프로젝트, 극동지역 공동벌목 및 농업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넷째, 1999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왔던 북한의 대외무역액이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였음. 이는 북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양국간 교역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감소와 북한내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 부진 및 열악한 수출 경쟁력 등도 대외무역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

2. 남북한 경제현안

가. 남북경협 현황 및 2003년도 전망

- 2002년 남북교역액은 6억 4,173만 달러로 전년동기(3억 6,268만 달러)대비 59.3%나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6억 달러를 상회하였음.
- 반입액은 2억 7,158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2% 증가하였는데,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잡제품 등임.
- 반출액은 3억 7,015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2% 증가하였으며,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상업적 매매거래 및 위탁가공 교역 등과 같은 거래성 교역은 2002년에 3억 4,296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3%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의 53.4%를 차지하였음.
- 경수로 물자, 식량지원, 철도·도로 자재 및 장비 등의 비거래성 교역도 2억

9,877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9.3% 증가하였고, 전체 교역액의 46.6%를 차지하였음.

- 이와 같이 2002년도에 남북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거래성 교역인 상업적 거래와 섬유류 위탁가공교역 등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와 함께 비거래성 교역인 대북 식량차관을 비롯하여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된 자재장비 등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교역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는 교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대북 투자사업은 2002년말 현재 참여업체 수는 52개(경제협력사업자 승인 기준), 사업승인 건수는 25건을 기록하고 있음.

- 대북투자 예정금액은 2002년말 현재 총 5.7억 달러(경수로 건설사업 제외)로 이중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1.8억 달러이며, 특히 현대의 금강산사업 및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여타 대북투자는 규모면에서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대북투자가 부진한 것은 지난 2000년 12월에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의 경협관련 4대 합의서가 여전히 실제 가동되지 못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와 함께 북미관계 개선의 지연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되고 있고, 이라크 전쟁위기 및 베네주엘라 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급등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투자활동 위축 등도 대북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2003년도 남북경협은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데, 특

히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및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은 극도로 위축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음.

- 금년도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적 변수로는 ▲노무현정부의 출범과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상황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우선, 금년도 남북경협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바로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이에 따른 북미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시 드러난 북한의 농축 우라늄 개발문제를 시발로 하여 11월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 12월 북한의 핵동결 해제선언에 이어 2003년 1월 12일에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994년에 체결된 북미 제네바협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북미관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음.
- 만약 북한 핵문제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현실적으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전면적인 경제봉쇄와 UN 및 관련국들을 통한 외교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 남북경협도 불가피하게 제한을 받거나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기존에 합의되었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개성공단 개발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등도 대부분 중단되거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북한이 미국과의 새로운 합의를 통해 핵개발을 전격 포기하고 핵동결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전면 수용할 경우, 미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이후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기존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국제금융 기구를 통한 대규모 자금지원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으로 연결되어 교역 및 외자유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북핵문제가 평화적 해결과정에 들어서고 미국·일본 등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협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결국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전개양상에 따라 남북경협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근 북미 양측의 움직임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가들의 중재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년중 남북경협은 상반기에 다소 위축되었다가 핵문제가 평화적 해결과정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하반기 이후부터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남북경협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신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적으로 노무현 당선자가 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대선기간 중에 밝혀왔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북핵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북미관계가 계속 악화될 경우 남한 정부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핵문제와 북미관계로 인한 남북경협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새롭게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됨.

나. 주요 현안

□ 철도·도로 연결사업

-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관통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가 완화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협력관계가 확고히 구축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또한 경의선 및 동해선이 연결되면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는 크게 활성화될 것이며, 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남한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및 남북한간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남북한은 지난 2000년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복원 및 문산 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 방북시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새로이 추가되었음.
- 이후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를 9월 18일 착공기로 합의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착공식을 거행하였음.
-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과 관련된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 등은 2002년 말까지 거의 완료되었으나, 최근 비무장지대 관리를 둘러싼 북한군과 유엔사령부간의 마찰 및 북한 핵개발 문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임.

- 그러나 북측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핵문제 해결 이전이라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성공단

-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현대는 지난 2000년 8월 22일 북경에서 ‘개성경제지구 및 관광 사업 합의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음.
- 당시 현대측은 전체 사업부지 2000만 평 가운데 ▲1단계로 사업비 3,000여억 원으로 100만 평 규모의 시범공단을 완공하여 신발·섬유·전자 등 경공업 위주 산업을 유치하고, ▲2단계에서 제2공단 300만 평을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기계·전자·컴퓨터 산업을 유치하며, ▲3단계에서 제3공단 400만 평을 완공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음.
- 2001년 9월 15일 18일간 개최된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이 기대되었음.
- 그러나 이후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소강국면 및 현대측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002년 하반기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건설의 금년내 착공’에 합의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11월 20일에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발표하였음.
- 이와 같이 북한측의 관련법 제정과 남북한 당국간의 개발합의로 인해 개성공단은 금년도 남북경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제기될 전망이며, 특히 경의선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이 연결될 경우 개성지역은 남한과

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성 및 서울을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전력·용수·항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북한 핵문제가 가급적 조기에 해결되는 것이 제일 중요함.

□ 금강산 관광사업

- 금강산 관광사업은 국민의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강력한 사업의지 등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분단 반세기만인 1998년 11월에 실현되었음.
- 2002년 11월로 4년째를 맞은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경협 의 일환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하여 큰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측의 자금사정 악화와 관광객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미 2002년 1월에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간 평화와 교류에 기여하는 점과 관광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 발표하였음.
-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2002. 3. 28 제정)에 의거 2002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생 70%, 이산가족,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60%의 관광비용을 지원하였음.
- 2002년 9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자회담에서 2002년 12월초 육로관광을 시작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당국회담 및 사업자(현대와 아태)간 회담을 통해 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한 육로관광을 2003년 초에 실시하였음.

- 한편 북측도 200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하고, 11월 13일 정령으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발표하였음.